

의안번호	제 534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11월 일 (제352회)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11월 23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534
----------	-----

제안연월일 : 2016년 11월 23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함. 이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11월 산지 쌀값 80kg기준 13만원대 이하로 떨어짐
- 이 뿐만 아니라 쌀 재고량은 지난 8월말까지 정부양곡 175만 톤과 민간양곡 25만톤을 합쳐 총 200만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 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 값 안정화 및 쌀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불 임 : 건의안

보낼곳 :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막 추수를 끝내고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유례없는 대풍년으로 사상 초유의 쌀값 대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으로 12만 9348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11월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3만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20년 전에 비해 70%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쌀값의 폭락이 크게 떨어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쌀 재고량은 지난 8월말까지 정부양곡 175만톤과 민간양곡 25만톤을 합쳐 총 200만톤으로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쌀 소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식량자급률이 약 25%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시대 변화에 따른 쌀 시장의 생산·유통·소비정책과 쌀 산업 강화 및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6.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